의정부소방서, 설 명절 맞이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나서

기사입력 2024-01-31 16:12:57

의정부소방서, 설 명절 맞이 선물 포스터/사진:의정부소방서 제공

[대한경제=최종복 기자]경기 의정부소방서는 내달 8일까지 설 명절 맞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화재발생은 17건으로 인명피해 1건, 재산피해 1억1406만4000원 발생하였으며 △장소별 화재발생은 주거시설(41.2%), 차량(11.7%), 야외(11.7%), 음식점(11.7%), 기타 건축물(11.75%)이며 △원인별로는 전기적요인(35%),부주의(29.3%), 기계적요인(11.7%), 기타 4건(각 6%)순으로 나타났다.

이에 의정부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, 전통시장, 아파트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△비상구, 장애물 적치, 소방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기관 합동조사 △전통시장 화재안전 합동점검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△ 아파트 피난 및 방화시설 현장확인 △ 화재취약시설 화재예방 관련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를 전개하는 등 설 명절 맞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 할 방침이다.

또한 화재취약대상 관계인들을 대상으로'안전메시지 전송'과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등 언론매체등을 통한 화재예방 집중 홍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유해공 의정부소방서서장은 "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관련 화재안전수칙을 지켜주시고 관계자들께서는 평소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란다"고 전했다.

의정부=최종복 기자 bok70000@

〈ⓒ 대한경제신문(www.dnews.co.kr)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금지〉

정치사회부

최종복 기자

bok70000@naver.com

▶ 구글 플[illegible]토어에서 '대한경제i' 앱을 다운받으시면
-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.
- 명품 컨텐츠가 '내손안에' 대한경제i